

12월의 기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1.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2.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다 우리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옵소서.
3.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서 예수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오르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저물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기도를 통해 이기는 삶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종로에 살았는데 남편은 형사였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권사님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구역 예배에 가는 도중, 갑자기 마음이 위기감이 느껴지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조용한 데가 없어서 전봇대 옆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돌아볼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져서 구역 예배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갔더니 그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둑이 서랍을 살살이 다 뒤졌는데 금붙이와 현금이 든 보따리만 그대로 둔 것입니다.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둑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팍 들어차게 되고 대중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감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린도전서 14장15절)”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다시 아는 말로 기도 하면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22 키워드로 본 DCEM

성령님과 동행한 새로운 도약을 향해

선교와 도약



한해가 저물어 간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꿈을 안고 시작한 2022년은 올해 조용기 목사 1주기를 맞아 성령님과 동행한 고난과 영광의 64년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계승·확장되도록 DCEM은 올해 9월 일본 동경을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에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지난 9월 16일 일본 심장부 동경의 신주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영산 1주기 추모예배 성회는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동경교회가 주최, 순복음일본총회가 후원하였으며 강사로는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초청돼 말씀을 전하였다.

영산 1주기 추모예배 성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 전역의 선교사 및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한국에서도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스승 조용기 목사의 복음 열정을 되새기며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일본순복음동경교회 담임)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일천만구령운동을 전개한 조용기 목사님의 뜻을 이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복음동경교회의 각 부서가 유감없이 각자의 달란트를 보여주며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조용기 목사가 작사한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찬양한 연합찬양대는 우리에게 그의 삶이 열정의 사역 그 자체였던 것을 회고하게 했다.

조용기 목사는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5명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시작하여 80만 명의 성도로 부흥한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교회에까지 큰 부흥의 불을 붙였다. 말씀-기도-성령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세계 무대에 한국교회를 데뷔시켜 1980년 중반까지도 세계를 다녀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조용기 목사’ 밖에 없다”는 말들을 했을 정도였다. “David Yonggi Cho”는 글로벌 톱에 섰고 조 목사는 해외 곳곳에서 영적 한류 열풍을 일으킨 원조였다.

말씀을 자학 그대로 믿는 믿음, 불퇴전의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 성령을 전폭 의지하는 은사, 특출한 노력과 근면성에서 견줄 이 없이 뛰어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에 취해 달린 그의 전력질주는 20세기 지구를 영적으로 뒤흔들기 충분했다. 우리는 삶을 전부 걸었던 조용기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하나 됨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진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돼 2023년 더 새롭고 더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며 행복한 꿈을 설계해 나가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 (창 12:1~3)

리가 가야 할 땅을 이미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판단력을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리므로 조금도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2.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

사람이 등 따습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 청춘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는 끄떡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극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 교만이 박살이 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있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이 다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앓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3.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칠후같이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주님 말씀한 마디만 의지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내어 던져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모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문제에 부딪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화가 아니고 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낭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이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삶을 단호히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준엄한 것을 뛰어넘어 가혹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75년을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고 허물없이 친한 친척들을 떠나고 나이 많은 부친과 아비 없는 조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세상의 것에 정과 사랑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도 땅도 세계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 전체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7)

1992년 모스크바 성회 기억남은 성회로 꼽기도



▲1992년 6월 모스크바 성회가 열린 크렘린 궁 앞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



▲1992년 모스크바 대성회



▲1993년 3월 케냐 성회



▲1994년 2월 인도 대성회에서 안수하는 조용기 목사



▲1994년 2월 인도 대성회



▲1997년 9월 브라질 성회

조용기 목사의 인기는 대만에서도 대단했다. 1986년 8월 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제 1회 아시아성도방한대성회가 개최되면서 대만 등 중화권 교회가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만에 조용기 목사 제자 학교가 설립됐고 대만은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 조용기 목사가 대만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었다.

조용기 목사가 해외 성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은 성회는 1992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조용기 목사 초청 모스크바 대성회’와 1997년 9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브라질 대성회’다. 모스크바성회는 소련의 붕괴 이후 열린 개신교 최대 집회였다. 정부의 반대로 성회장소가 갑자기 폐쇄되기도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야외 집회가 열리면서 1만 5000여 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성회였다.

브라질 성회는 무려 150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로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정도였고 남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특히 비행장에서 열린 성회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조용기 목사는 헬기를 이용해 강단으로 이동해야 했을 정도였다.

조용기 목사는 1992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 6차 하나님의성회 대회에서 세계하나님의 성회 총재로 선출됐고 세계오순절 성령운동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제 3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성회에는 120만여 명이 운집했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93 아프리카성령화 대성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1994년 2월 마리아 해변에서 개최된 '국제 CGI 인도대성회'에 연인원 200만명이 참석해 개신교 최대 집회로 기록되고 있다.